

가성비 甲 ... 스포티한 디자인에 편안함·안정감도 갖췄다

기아차 SUV '스토닉' 시승기

부드러운 스타트 다이내믹한 주행 ... 견고한 느낌 2030 젊은세대 취향 저격 ... 사회 초년생에 제격

기아자동차의 신형 SUV '스토닉'의 시승 결과 성격은 모든 것이 '예스'(Yes) 합격점이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의 끝판왕이라 불리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이것 저것 적용해 복잡하기만 하고, 가격만 올라가는 요즘 신차의 '과함'을 스토닉은 '절제'로 풀어냈다.

지난 9일 스토닉의 시승 행사에 참석해 기아차 광주공장(서부터 화순에 위치한 유진정까지 왕복 32km 구간을 약 1시간 동안 운전해 봤다.

이날 시승한 차량은 스토닉 프레스티지 트림 풀옵션 모델로 기아차의 첨단 주행 보조 기술인 '드라이브 와이즈', 스마트 내비게이션, 선루프 등이 적용됐다.

20·30대 젊은층을 겨냥한 모델인 만큼 외양은 전체적으로 스포티하고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강조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슬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전면부 헤드램프가 먼저 눈에 띄었다.

점단 건축 공학의 상징인 고공의 다리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루프랙이라는, 스포티한 느낌의 전체적인 차체 비례와 어울려서 견고한 느낌이 들었다.

운전석에 앉아보니 좁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수평형의 레이아웃

을 기반으로 해 공간이 더욱 여유로워 보였으며, 지상고 및 전고 최적화 등을 통해 확보한 넓은 충분한 시야는 운전해 미숙한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 같았다.

조향장치와 연동해서 전방의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스마트 코너링 램프를 내장해 안전성을 강화했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시동을 걸고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했다. 기존 소형 SUV는 힘이 딸린다는 편견이 있는데, 페달을 밟으니 스타트가 부드럽고 힘차게 쭉쭉 나가는 것이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수동변속기의 우수한 연비와 자동변속기의 편의성이 합쳐져 스토닉은 즉각적으로 가속에 응답했고, 다이내믹한 주행이 가능했다.

흔히 도심형 SUV의 중요한 요소로 핸들링과 승차감을 꼽는데, 스토닉은 다이내믹하게 달리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하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든든한 바디 덕분에 흔들림 없이 주행이 가능했고, 도심의 좁은 도로나 빠른 차선 변경시 민첩한 스티어링이 돋보였다.

영양 F1 서킷에서 반복적인 주행 테스트를 거쳐 탑승객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최



지난 9일 취재기자가 탄 스토닉 차량이 화순 국도를 달리고 있다.

<기아차 제공>

화할 수 있도록 완성했다는 기아차의 설명에 수긍이 갔다.

주행 중 후측방 사각지대의 차량 또는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인 후측방 충돌 경고는 각 진입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빛을 발했다.

또한,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물론 주변 조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하이빔을 제어하는 하이빔 어시스트도 매우 유용해 보였다.

다만 에어컨을 가동하고 도심 주행이 많아서인지 주행중 연비가 15km를 오르내려 기존 연비 17.0km/ℓ에 미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시승을 해본 스토닉은 경제성, 스타일, 안전성을 고루 갖춘 균형잡힌 상품성, 만능 소형SUV로 평가할 수 있었다. 20·30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기 시작한 스토닉이 국내 소형SUV 시장에 물고 새 바람을 기대해본다.

한편 스토닉은 1.6 디젤 단일 모델로 총 3개 트림(디럭스, 트렌디, 프레스티지)으로 운영된다. 판매가격은 ▲디럭스 1895만원 ▲트렌디 2075만원 ▲프레스티지 2265만원이다.(전 트림 7단 DCT 기본적용)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프리미엄 밴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유로스타'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밴(van)의 공식 서비스 딜러사인 와이즈오토홀딩스는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유로스타'를 지난 10일 출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는 1995년 1세대를 시작으로 20여년간 130개 국가에서 300만대 이상 판매된 프리미엄 밴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스프린터 유로스타는 차체 높이가 2.35mm로 지하 주차장을 진입하기가 편리하고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190마력의 디젤 엔진과 자동 7단 변속기를 장착해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하며 운전자를 보조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등 최첨단 안전 사양이 적용됐다.

판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1억1990만원이다.

이와 함께 와이즈오토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수입차 거리인 도산대로 인근에 지상 2층, 총면적 1409.3㎡(약 430평) 규모의



지난 10일 '메르세데스-벤츠 밴 강남 프리미엄 스토어'에서 모델이 새롭게 출시한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유로스타를 선보이고 있다.

<와이즈오토홀딩스 제공>

'메르세데스-벤츠 밴 강남 프리미엄 스토어'를 열었다.

이 시설은 와이즈오토 프리미엄 밴 강남 전시장과 메르세데스-벤츠 밴 공식 강남

서비스센터, 스타 라운지로 구성되어 있어 차량 구매부터 서비스, 사후 관리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디젤 차량 배출가스 측정방식 기준 강화 ... 완성차 업체들 고민

신차 다음달부터 기준 적용

디젤 차량 배출가스 측정방식 기준이 9월부터 강화되면서 디젤 차량을 주종으로 한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으로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발목을 잡힐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기준 방식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측정방식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있다.

개정안은 차량 총중량 3.5t 미만 디젤차에 한·EU FTA에 따라 유럽과 같은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고, 실도로 조건의 입자개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으로 해오던 디젤차 배출가스 측정 방식이 WLTP

로 바뀌고 실도로 배출허용기준(RDE)까지 추가되면서 훨씬 강화된 것이다.

새로운 기준에 맞추려면 대폭 늘어난 테스트 주행 시간과 거리, 속도 등 까다로운 주행 상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측정 방식과 달리 늘어난 거리와 빨라진 속도는 엔진에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더 많은 배출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신차의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기존에 개발돼 판매 중인 차량은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량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미 개발돼 판매 중인 차량이 우선 문제다. 배출가스와 관련한 장치의 기술을 자체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당장 1년 안에 새로운 기준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디젤 차량이 주력인 쌍용자동차와 QM6를 내세운 르노삼성자동차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디젤 차량을 주력 상품

로 내걸고 있는 일부 업체는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점을 늦춰달라거나 여러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측정방식 강화 기준을 맞추는 데 연구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오는 2019년 9월까지 1년가량 적용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관계자도 "적용 시점을 2019년 9월까지 늦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 개별기업이 정책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유예 없이 (기준대로) 적용된다면 다른 환경부가 얻으려는 배출가스 감소 효과를 맞추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화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원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웅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국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함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